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와 러시아의 평가

민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김경민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kmkim@kiep.go.kr, Tel: 044-414-1507)



차 례

1. 배경
2.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
3. 러시아의 평가와 전망

주요 내용

- ▶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래 러·북 간 협력 재개 동향이 관찰되고 있음.
 - 2022년 초 러·우 전쟁 발발 전후로 양측간 협력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6월부터는 양측간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11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던 무역이 재개됨.
 - 2023년 7월, 러시아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발표함.
- ▶ 이번 러·북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군사협력, 경제·통상,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 러시아 측 대표단에 외교, 국방, 우주기술, 산업통상, 교통, 건설, 극동지역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군사, 경제 부문에 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북한 측 대표단의 구성과 방문지를 고려할 때, 북한 측에서는 군사협력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 ▶ 러시아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이 양측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으며, 러·북 고위급 인사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간 밀착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러시아 포탄 부족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러시아는 UN 대북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북 정상회담을 최근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및 에너지와 북한의 인력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러·북 간 군사협력이 중·러 관계와 한·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1. 배경

■ 과거 북한과 러시아의 대외관계는 ‘당과 당’ 차원의 교류와 극동러시아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논의 수준에 그쳤음.

- 그동안 양측간의 주요 논의 안건은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경제협력에서 주요 안건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나진-하산 복합물류사업 추진 △두만강 교량 건설 △북한 상품 전문점 건설 △러시아 루블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이었음.
 - 교류협력의 주요 안건은 △정상외교를 통한 관계 개선 △경제협력 위원회 △전략대화 △인도적 지원 △동방경제포럼 △고위급 인사교류와 군사협력 등이었음.
- 2020년 1월 북한의 코로나19 국경봉쇄 이후 러·북 협력이 중단되었음.

■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전후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대한 지지세력 확보와 군사협력을 위해 북한과 논의를 진행함.

-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 양측간 협력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국제사회에서 상대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2022년 2월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은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UN 결의안에 반대하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을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지지해옴.
- 2023년 7월에는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를 발표함.
 - 이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러시아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공식 방문한 것임.

■ 이러한 배경에서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됨.

-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러시아 정부 관계자 및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회담 의제와 러시아 측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함.

2. 러·북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북은 외교적 교류 및 지지를 통한 상호 우호관계 증진, 식량 및 에너지를 포함한 무역 재개,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북한 노동자 파견 문제, 양국간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군사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함(표 1 참고).

- 2022년 11월부터 서방에서 제기한 러·북 간 무기거래 의혹에 대해서 러시아는 전면 부인해왔으나, 2023년 7월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양측간 군사협력 가능성 및 강화 의지를 공표함.
 - o 러시아는 2022년 11월 양측을 오간 열차는 ‘무기를 옮길 수 없는 소규모의 화물열차(5~8량)’였으며, 특수장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¹⁾
 - o 2023년 7월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시기에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양국간 무기거래를 기정사실화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였음.²⁾
 - o 그러나 9월 들어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과의 군사협력 논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함.

표 1.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북 간 주요 협력 및 논의 추이

| 시기 | 주요 내용 |
|-----------|---|
| 2022년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철 주러 북한대사와 알렉세이 체쿰코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경제적 유대와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 •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 양측간의 협력 강화에 합의 |
| 2022년 3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철군을 요구하는 UN 결의안에 반대 |
| 2022년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UN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제재 채택 무산 |
| 2022년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북은 나진-하산 철도 노선 복원, 어업협력 재개, 탄광산업 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 |
| 2022년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독립을 공식 인정 |
| 2022년 8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북 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재건협력 가능성 제기 • 북한의 러시아산 밀가루 대량 수입 |
| 2022년 10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 지지 천명, 러시아의 불법 영토병합을 규탄하는 UN 결의안에 반대 • 북한은 러시아 내 6곳에 무역사무소 신설 준비 착수(밀가루, 휘발유, 디젤유, LNG 등 수입 확대 의도로 추정) |
| 2022년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던 러·북 간 철도화물 임시 운송을 통한 무역 재개 |
| 2022년 1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북 간 관광분야 협력협정 체결 논의 |
| 2023년 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북 간 포괄적 관계 발전 추진 |
| 2023년 2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북 간 무비자 협정 체결 논의 • 관광 비자 간소화 대상국에 북한 포함(북한인은 최대 6개월 무비자 체류 가능) |
| 2023년 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북 국경지대 투자 확대 논의 • 러·북 접경지역 하산에 위치한 조·로 친선각(우호의 집) 재개장 기념식 개최 |
| 2023년 5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북 루블화 결제 시스템 구축 논의 • 러·북 철도화물 정기 운송 재개 |
| 2023년 6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제마코 프리모리에 주(연해주) 주지사 북·중·러 상공업단지 설립 계획 언급 •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 러·북 정부위원회 회의에서 라진항 기반 운송 허브 개발 논의 • 북한은 ‘러시아의 날(독립기념일)’에 ‘더 긴밀한 전략적 협력’ 제안 |
| 2023년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소련 해체 이래 러시아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이후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 발표 • 러시아는 북한에 전자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 재개 |
| 2023년 9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과의 연합군사훈련 개최방안을 논의한 사실 언급 • 14일 러·북 정상회담 개최 |

자료: 러·북 관계 주요일지(2022년 1월~2023년 7월 자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CSIS(2023. 9. 6), “A Renewed Axis: Grow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1) “Вооружают ли северокорейцы Россию? Не факт, что уже highly likely, как и не факт, что highly unlikely вообще” (2023. 2. 28), Republic(Slon).
 2) “Почем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наряды на Украине вызвали переполох на Западе”(2023. 7. 29), ВЗГЛЯД.

-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한 양측 대표단의 구성, 북측 대표단의 방문지, 최근 러시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러·북 간 주요 협력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군사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 경제·통상,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³⁾
- 러시아 측 대표단에 외교, 국방, 우주기술, 산업통상, 교통, 건설, 극동지역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아 군사, 경제 부문에 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o 러시아 측 대표단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실 대변인, 알렉세이 오버추크 부총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유리 보리소프 코스모스 대표, 니콜라이 네찌츠크 TsENKI 사무총장, 데니스 만투로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마라트 후스놀린 부총리(건설 및 지역개발 부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러·북 정부간위원장), 비탈리 사벨리에프 교통부 장관 등 비교적 다양한 부문의 인사들이 참석함.⁴⁾

그림 1. 북한 대표단의 이동경로



주: 시간별 방문지 또는 통과지 순서.

자료: 「김정은, 역대 최장 5박 6일 외국 체류...우주·군사 행보에 집중」(2023. 9. 17), 『한국경제』.

3) “Переговоры Пут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на Восточном завершились”(2023. 9. 13), Ведомости; “Чему посвящены переговоры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Ким Чен Ына на «Восточном»”(2023. 9. 13), Ведомости.
4) “В делегацию России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КНДР вошли Лавров, Хуснуллин, Шойгу”(2023. 9. 13), ТАСС.

- 북한 측 대표단의 구성과 방문지를 고려할 때, 북한 측에서는 군사협력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 북한 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살펴보면, 이병철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박태성 우주과학기술위원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 강순남 국방장관 등 군부 핵심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으며, 이 외에 최선희 외무상,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 등이 참석함.⁵⁾
 - 북한 대표단이 위성·미사일 기술, 공군 및 해군 등과 관련된 장소를 주로 방문한 것으로 비추어보아 정찰위성을 비롯한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 공군력 강화, 해군 현대화 등에 대한 북측의 관심을 엿볼 수 있음(그림 1 참고).⁶⁾

■ 러시아 측 정부 관계자는 러·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군사·우주기술, 경제 부문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가 다뤄졌다고 밝힘.

- [군사협력] 9월 16일 김 위원장과 쇼이구 국방장관이 국방·안보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보도됨.⁷⁾
- [우주기술] 푸틴 대통령은 보스토치니를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한 이유로, 김 위원장의 로켓 기술에 지대한 관심과 북한의 우주 개발을 위한 노력을 언급함.⁸⁾
 -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 대표는 러시아가 북한 우주비행사의 비행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⁹⁾
- [국제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즉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¹⁰⁾
- [경제협력]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으며, 양측간 교통망, 물류, 항구 운영 재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가 존재한다고 언급함.¹¹⁾
 -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은 라진-하산 프로젝트, 두만강 교량 건설, 식량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¹²⁾
 - 코제먀코 프리모리예 주(연해주) 주지사는 북한과 건설, 관광, 농업 분야 협력을 연내에 시작하는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중·러 상공업 단지 조성 계획도 밝힘.¹³⁾
- 이 외에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의료, 교육, 인문학 등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함.¹⁴⁾

5) 「김정은 방러에 리병철·박정천 ‘군부 실세’ 동행…군사협력 합의 나오나」(2023. 9. 12), 『경향신문』; 「Ким Чен Ён выразил «полную и безоговорочную»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и」(2023. 9. 14), Радиои Озодӣ.
 6) 「김정은, 역대 최장 5박 6일 외국 체류…우주·군사 행보에 집중」(2023. 9. 17), 『한국경제』; 「Как проходит визит Ким Чен Ёна в Россию Фоторепортаж」(2023. 9. 15), РБК.
 7) 「Ким Чен Ён и Шойгу обсудил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КНДР в сфере обороны」(2023. 9. 17), EurAsia Daily.
 8) 「Чт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Ён обсуждали пять часов на переговорах」(2023. 9. 13), РБК.
 9) 「Борисов заявил о готовности отправить в космос представителя КНДР」(2023. 9. 16), Ведомости.
 10) 「Какое оружие КНДР может поставить РФ для СВО: итоги встречи Путина и Кима」(2023. 9. 13), New.ru.
 11) 「Какое оружие КНДР может поставить РФ для СВО итоги встречи Путина и Кима」(2023. 9. 13), New.ru; 「Глава Минприроды рассказал, какие темы обсуждал с Ким Чен Ёном」(2023. 9. 17), Риа Новости.
 12) 「Какое оружие КНДР может поставить РФ для СВО: итоги встречи Путина и Кима」(2023. 9. 13), New.ru; 「Чт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Ким Чен Ён обсуждали пять часов на переговорах」(2023. 9. 13), РБК.
 13) 「러시아 연해주 “북한과 건설·관광·농업 협력 연내 시작 논의”」(2023. 9. 14), 『SPN 서울평양뉴스』; 「북러, 군사 외 교류도 본격화…연해주지사 “대표단과 방북 예정”」(2023. 9. 17), 『연합뉴스』.
 14) 「Визит в Пхеньян и другие новые детали саммита Россия - КНДР」(2023. 9. 13), Вести.

3. 러시아의 평가와 전망

■ [군사협력 가능성] 북한과의 군사협력 이점에 대해 러시아 내부의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존재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러시아 내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무기 및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음.
 - 러시아 군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군의 '포탄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북한이 드론, 미사일, 군사 장비(예: 다연장 미사일 발사기) 등을 러시아에 넘기면,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최신 러시아산 항공기와 돈바스 지역 도시 재건 계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¹⁵⁾
 - 러시아 군사과학아카데미 관계자는 북한이 특별 군사작전 지역(러시아 점령지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지원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¹⁶⁾
 - 퇴역 군인이자 군사 전문가인 바라네츠는 북한 포탄의 질이 나쁘지 않으며, 이 외에 통신과 전자전 장비도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평가함.¹⁷⁾
 - 정치 전문가인 아르타모노프는 북한이 세계 최대 규모의 포신(2만 2,000문)을 보유하고 있고, 장거리 무기, 탱크, 전차, 다중발사 로켓시스템, 잠수함 부문에서 크게 앞서 있다며 군사 잠재력과 능력을 높게 평가함.¹⁸⁾
 -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122mm와 155mm 포탄 약 천만 개, 하이마스(고속기동포병 로켓시스템)를 개선한 유사 무기(최대 사거리 400km), KN-09(다연장 로켓시스템)를 지원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함.¹⁹⁾
- 군사협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함.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학센터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고립된 상태에서 비축한 포탄을 방출할 수 없고,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수송 능력이 제한된 철도 교량이 단 하나뿐이라 비밀리에 무기를 수송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함.²⁰⁾
 -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호환성은 좋지만, 북한의 무기는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공세를 지속할 정도이지 전황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함.²¹⁾
 - 러·북 협력이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됨.²²⁾

■ [한·미·일 동맹 대응]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 한·미·일 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도 해석됨.

- 러시아는 최근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를 새로운 과제와 위협 발생으로 인식함.²³⁾

15) "Ядерный союз, военная помощь: зачем Шойгу летал в КНДР на самом деле"(2023. 7. 29), NEWS.RU.

16) *Ibid.*

17) "Какое оружие КНДР может поставить РФ для СВО: итоги встречи Путина и Кима"(2023. 9. 13), New.ru.

18) "КНДР - это родина западных страхов"(2023. 9. 15), RGRU.

19) "Баранчи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ставит РФ 10 млн снарядов калибра 122 и 155 мм"(2023. 9. 18), pravda.ru.

20)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близки как никогда"(2023. 9. 23), Холод.

21) *Ibid.*

22) "Роман с Ким Чен Ыном как Кремлю не попасть впросак"(2023. 9. 15), MKRU.

23) "Сближение России и КНДР бьет по интересам Китая"(2023. 9. 17), Независимая.

-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북한의 지도자들은 군사기술 협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두 국가를 적대시하는 정책과 안보 위협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양측의 협력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²⁴⁾
-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당분간 동북아의 대결 구도가 첨예화되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서방의 경고가 아닌 양측의 국익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함.²⁵⁾

■ [UN 대북제재]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UN 제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²⁶⁾

- 푸틴 대통령은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는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함.²⁷⁾
 -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러·북 군사기술 협력에 관해 제재가 있고 러시아는 이를 준수하지만, 그럼에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협력에 전망이 있다고 평가함.²⁸⁾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발사체에 북한의 위성을 탑재하여 발사하면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준수하면서 북한과의 우주기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군사기술 협력은 무기 공급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밝힘.²⁹⁾
- 러·북 정상회담 직후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참석하였고, 러·우 전쟁에 대해 논의하던 중 루카셴코 대통령이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며 3자 협력을 제안함.³⁰⁾
 - 러·벨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의 이웃이기 때문에 좋은 이웃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고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답변함.³¹⁾
 - 그러나 서방은 러·북·벨 3자 협력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³²⁾
- UN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러·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³³⁾
 -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은 △북한으로 수출 금지 △북한으로부터 수입 금지 △기술훈련·서비스 등 이전 금지 △금융 제한 △여행 금지 △해외 북한노동자 제한 △선박 및 항공기 관련 제한 △확산 네트워크 방지며, 분야별 인도주의적 예외와 포괄적 인도주의적 면제 규정을 포함함.

24) “Битва з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Россия создает коалицию против альянса США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2023. 9. 14), Новый день.

25) Ibid.

26) “РФ буд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КНДР, не нарушая санкций ООН”(2023. 9. 14),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27) “As Kim Inspects Russia’s Military, Putin Cultivates ‘Axis of the Sanctioned””(2023. 9. 15), The New York Times.

28) “Путин увидел перспективы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2023. 9. 13), Interfax.

29) “В России раскрыли способ помочь КНДР обойти санкции в космической отрасли”(2023. 9. 13), lenta.ru.

30)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Белоруссии Александром Лукашенко”(2023. 9. 15),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31)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Александр Лукашенко ответили на вопросы СМИ”(2023. 9. 15),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32) “Putin and Kim Meet at Russian Cosmodrome”(2023. 9. 18), Eurasia Daily Monitor.

33) 박효민(2019), 「유엔 안보리의 대(對)북한 제재 연구: 분야별 주요 내용 및 주요국의 이행률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7호, pp. 183~208; 「UN제재 결의안」, 대북제재 온라인 지원도구 전략물자관리원.

-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품·소재와 핵·탄도미사일·WMD 관련 물품 등의 대북한 수출 및 북한으로부터 수입 모두 대북제재 사항임.

■ [협력 전반]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이 양측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존재함.³⁴⁾

- 푸틴 대통령은 양측이 지역 정세와 양자 관계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언급함.³⁵⁾
-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간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함.³⁶⁾
- 주북 러시아 대사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함.³⁷⁾
- 러시아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번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러·북 관계 장기 전망 또는 협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일부 전문가는 이번 회담이 양측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군사협력은 우호, 협력, 선의 차원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조만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봄.³⁸⁾
 - 러·북 관계의 역사,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되는 제한적 실리 등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UN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과 대규모 경제개발 프로젝트, 군사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양국간의 협력은 소규모 무역 확대, 북한 노동력 활용에 국한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함.³⁹⁾

■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식량 및 에너지와 북한의 인력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식량] 러·북은 북한 대표단의 방러 시기에, 연내에 러시아가 북한으로 곡물을 추가 수출하는 계획을 논의함.⁴⁰⁾
 - 이미 북한은 2023년 1/4분기 러시아 하산과 북한 두만시 국경을 통해 밀가루 4,946톤과 옥수수 4,309톤 등 총 1만 3,223톤을 수입했음.⁴¹⁾
 - ※ 통상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농업품(대두유 3만 806톤, 밀가루 5만 5,507톤, 설탕 5만 7,267톤, 조미료 1만 4,799톤 등)의 수입이 2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⁴²⁾

34) "Битва з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Россия создает коалицию против альянса США,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2023. 9. 14), Новый день.

35) "Путин увидел перспективы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2023. 9. 13), Интерфакс.

36) "Песков считает, что контакты лидеров РФ и КНДР перестали быть сенсацией и стали традицией"(2023. 9. 15), ТАСС.

37) "Посол рассказал о впечатлениях Ким Чен Ына от визита в Россию"(2023. 9. 17), Ведомости.

38)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ы углублять взаим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2023. 9. 18),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е ведомости.

39) "Назло опыту. Чего хочет Россия от Северной Кореи"(2023. 9. 22),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40) "Россия планирует начать поставки зерна в КНДР уже в этом году"(2023. 6. 27), Коммерсантъ; "В ходе визита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ю обсужда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ставки зерна в КНДР - глава Минприроды РФ"(2023. 9. 17), ИНТЕРФАКС-Россия.

41)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Россия и КНДР готовят взаимные визит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2023. 5. 25), Риа Новости.

42) 최장호, 최유정(2023), 「2022년 북중 무역평가: 경제난의 가중과 위드코로나 전환」,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6, pp. 6~13.

- [에너지] 최근에는 석탄을 중심으로 라진항에서 환적하는 러시아 화물운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⁴³⁾
 - 러시아는 2022년 12월~2023년 4월 기간 북한에 6만 7,300배럴의 정제유를 보급한 것으로 알려짐.⁴⁴⁾
- [북한인력 활용] 러시아가 새롭게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재건하는 데 북한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2022년 8월 러시아 마라트 후스놀린 부총리는 돈바스 재건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 돈바스 지역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해왔으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⁴⁵⁾
 - 북한 노동자의 생산성이 러시아 노동자의 2~2.5배인 데 반해 임금은 절반 정도여서, 북한 노동자 1명이 사실상 러시아 노동자 4~5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⁴⁶⁾
 - 공식적으로 UN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UN 회원국이 러시아가 병합한 지역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이 지역은 러시아 영토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실효적 지배를 받는 영토도 아닌 회색지대임을 고려하여 방법을 마련할 수도 있음.⁴⁷⁾
 -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일종의 이중 국적)을 부여한다면 러시아인으로 간주되어 본국 송환 대상이 아니므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2. 22) 제8항에 따라 UN 안보리 제재를 우회할 여지가 있음.
 - 최근 북한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및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조치가 취해져 북한 노동자 활용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⁴⁸⁾
 - 이미 북한이 돈바스 지역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라고 명령했으며, 대략 300~500명의 19~27세 기혼자들이 1차 배치되었다고 알려짐.⁴⁹⁾

■ 러·북 고위급 인사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간 밀착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⁵⁰⁾

- 9월 13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평양 답방을 수락하였음.
 - 페스코프 대통령 대변인에 따르면, 외교적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을 계속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⁵¹⁾
 - 일각에서는 북·중·러 정상회담이 10월에 개최되는 제3차 일대일로 정상회담 기간에 진행될 가능성을 제기함.⁵²⁾

43)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Россия и КНДР готовят взаимные визит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2023. 5. 25), РИА Новости.

44) “Россия возобновила поставк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2023. 6. 13), Lenta.Ru.

45) “Хуснуллин сообщил, что на освобожденных в ходе СВО территориях работают 26 тыс. строителей”(2022. 8. 19), Tass.

46) “Хуснуллин предложил отправить на стройки рабочих из КНДР и заключенных”(2022. 9. 15), РБК; 통일연구원(201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KINU 통일나침반』, 15-05, pp. 70~73.

47)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едут в Донбасс”(2023. 2. 6), REGNUM.

48) 「러, 북한 등 19개국 관광비자 발급 간소화」(2023. 3. 22), 『자유아시아방송』.

49) “Северные корейцы едут в Донбасс”(2023. 2. 6), REGNUM.

50) “Визит в Пхеньян и другие новые детали саммита Россия - КНДР”(2023. 9. 13), Вести.

51) “Песков: контакты руководства РФ и КНДР не являются сенсацией”(2023. 9. 15), Ведомости.

52) 「金正恩访俄结束后 朝中俄峰会可能性引关注」(2023. 9. 17), Hua Daily News.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10월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러·북 정부간위원회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임.
- 올레그 코제마코 프리모리예 주(연해주) 주지사도 곧 농업·경제 분야 대표단과 함께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힘.⁵³⁾
 - o 무역, 경제, 관광, 농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였음.
- 중국정부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중국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거나, 러·북 군사협력이 중국의 선린외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음.⁵⁴⁾
 - o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군사기술 사용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으며, 러·북과의 군사협력에 동참함으로써 자국에 대해 서방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러·북과 거리를 두고자 할 것으로 보임.⁵⁵⁾ KIEP

53) 「북러, 군사 외 교류도 본격화...연해주지사 “대표단과 방북 예정”」(2023. 9. 17), 『연합뉴스』.

54) 「“普金会”的虚与实：东北亚地缘政治解读」(2023. 9. 18), 『联合早报』.

55) “«Двойное отношение», Как в Пекине воспринимают сближение Росс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2023. 9. 20), Крѣм. Реалии: “Назло опыту. Чего хочет Россия от Северной Кореи”(2023. 9. 22),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